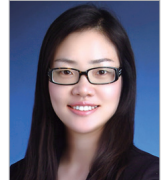


전통수의학에 대한 이해

전통수의학의 예방과 치료원칙



강 무 속
 동물재중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전통수의학적 치료방법은 다양하다. 크게 보면 내과적 치료법인 내치법內治法과 외과영역의 치료법인 외치법外治法으로 나눌 수 있고, 구체적인 치료법에 있어서는 침, 뜸, 약이 기본이 되고, 이 세 가지 기본 방법을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다. 침에는 일반 체침, 약침, 화침, 안침眼針, 전기침, 레이저 침 등이 있고, 약에도 내복약과 외용약이 있는데, 제형에 따라서는 탕제(물약), 환제(알약), 산제(가루약), 고제(외용 고약제제)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외에도 안마와 지압 등의 방법도 일부 응용이 되고 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법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시술하는데,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전통수의학적 치료 기준을 예방과 치료의 원칙이라고 하며, 환측 치료 전반에 걸쳐 방향을 제시해주게 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예방의학적 성격이 짙은 ‘병이 들기 전에 치료를 한다’는 개념과 병에 걸린 후에는 자연치유력을 강화하고 깨어진 기혈음양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서양의학에도 예방의학이 있지만, 전통수의학에서도 조기 진단/조기치료와 비슷한, 병이 되기 전단계에 모종의 처치를 하거나, 병든 후에 다른 질환으로 악화되거나 합병증의 발현 또는 재발의 방지를 중요시 한다.

1. 질병의 예방

의학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질병의 예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통수의학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전통의학에서는 치미병治未病(병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한다)이라고 하여 예방의학적인 면이 강한 내용이 있다. 지금 당장 임상에서 전통수의학의 치

미병治未病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노령견의 증가와 소모성 질환의 증가는 치미병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어, 대략적인 개념만 소개하기로 한다.

치미병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으니 “미병선방未病先防(병이 되기전에 치료한다)”, “기병방변既病防變(병이 든 후에는 악화나 합병증, 재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1.1 미병선방未病先防

질병 발생을 예방한다는 미병선방未病先防은 면역력 증강과 체력 보강을 위한 다양한 처치에서부터 생활환경, 사료, 간식의 선택과 운동과 교배를 포함하는 사양관리와 백신접종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편찬된 《마경언해》의 말을 치는 법이라는 조항에 “... 목은 물과 언 콩과 목은 풀과 모래와 재, 티끌과 거미줄과 털 등을 가장 꺼리니, 먹으면 곧 여위어 병이 난다. 낮이면 그 형상을 보고, 밤이면 그 숨쉬기를 듣고, 풀과 콩의 많고 적음을 살피며, 질병의 있고 없음을 살피야, 이것이 이른바 가축을 치는 도이다. 만일 오줌이 맑고, 똥의 수분이 적절하고, 코 기운이 온화하며, 입술과 혀의 색이 선명하며, 털이 광택이 나 번번하며, 몸이 긴장하고 정신이 맑으며, 머리와 꼬리를 적게 움직이며..... 이것은 병이 없는 형상이니, 어찌 음식 먹이기를 그 법에 따르지 아니하랴?”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적절한 생활환경의 조성 and 사료 선택 등의 사양관리에서부터 말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화기능이 약한 자견이나 체력이



사진1. 마경언해 표지



사진2. 변노마형상지도



사진3. 말을 기르는 법

약한 노령견의 경우에는 쌍화탕이나 황기견중탕, 십전대보탕 등을 응용하는 것이 좋고, 습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병 소인을 가진 경우에는 일반 간식의 절제와 더불어 현미식이나 적절한 야채의 급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용 후, 나타나는 수면장애나 정서변화에는 가미귀비탕이나 가미소요산을 응용할 수 있다.

1.2 기병방변(既病防變)

병의 악화나 합병증, 재발을 방지한다는 기병방변(既病防變)은 전통수의학이 인지하고 있는 질병의 발생과 변화 규칙에 따라,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이 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재발방지와 병후 체력회복 등에 주로 응용되고 있다.

디스크나 관절염의 경우에는 재발의 빈도가 높는데, 독활기생탕이나 소경활혈탕, 육미지황탕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치료용량의 1/3~1/2정도를 유지요법으로 장기 복용을 할 수 있다.

뇌수두증, 척수공동증 같은 질환은 완치보다는 증상의 개선에 치료목표를 두게 된다. 환축의 체력이 약한 경우 다양한 약물을 적용하더라도 치료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존 약약을 사용하면서 가미귀비탕이나 보중익기탕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면 수면장애나 체력저하, 식욕저하 등의 증상에 개선을 가져 올 수 있다.

2. 치칙(治則)

질병을 치료하는 원칙이나 법칙을 줄여서 치칙이라고 한다. 다양한 증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질병의 원인, 병변부위, 병변의 성질 등을 파악하여 치료원칙을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해진 치칙은 치료법의 선택, 처방과 약물의 선택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치료원칙과 치료방법은 다른 개념인데, 치료원칙은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치료방법은 치료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원칙에는 치병구본(治病求本), 부정거사(扶正祛邪), 동병이치(同病異治)와 이병동치(異病同治) 등의 내용이 있다.

2.1 치병구본(治病求本(병의 근원을 치료한다))

질병의 근본원인을 밝혀, 그 원인에 대하여 치료를 한다는 것이 치병구본이다. 질병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임상증상을 통해 알게 되는데, 증상완화를 위한 대증요법을 쓰기도 하지만, 증상이 발현되는 원인과 기전을 밝혀 치료하는 원인요법을 더 중시한다.

IVDD에서 진통소염제와 호르몬제제도 좋은 선택이겠지만, 전통수의학에서는 IVDD를 야기하는 원인과 기전에 따라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누고, 연령이나 체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혀 성격이 다른 약물을 선택하여 각각의 IVDD 패턴을 치료하게 된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독활기생탕 종류의 처방을, 마비 위주의 환자에게는 보양환오탕을 처방한다. 만약 노

령견으로 사지 냉감이 느껴진다면 팔미지황환의 선택을 고려하고, 코가 마르고 마비된 사지의 강직으로 인정될 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육미지황환을 고려하게 된다.

2.2 부정거사扶正祛邪(정기를 돕고 사기를 제거한다)

질병의 상태를 정기와 사기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기가 정기를 이기게 되면, 질병은 계속 진행되고 악화될 것이고, 정기가 사기를 이기게 되면 질병은 호전되거나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기를 돕고 사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임상에서 정기와 사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교적 복잡하다. 정기에는 기본적으로 기혈음양의 구분이 있고, 장기의 허실이 있으며, 사기에도 외부에서 온 것, 내부에서 생긴 것, 질병으로 인해 생긴 병리 산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각각의 성질과 병리성격을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

자건과 노령견의 체력이 약한 경우, 약을 써도 약효가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고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소화기능의 저하로 식욕부진이나 정서변화로 수면장애가 생기는 경우,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통수의학과와 협진을 통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식욕부진에는 황기진중탕이나 보중익기탕, 쌍화탕, 십전대보탕을 응용하고, 수면장애나 공포에는 가미귀미탕, 분심기음, 가미소요산, 억간산가진피반하탕, 육미지황환 등을 응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얼마전 선천성 공뇌증으로 인해 뇌질환증상을 보이는 노령견에 양약과 더불어 이노제와 염증을 제거하는 약물 위주의 한약재 처방을 하여 치료를 해왔으나 증상 개선이 뚜렷하지 않았다. 환축이 체력이 부족하고 수면상태가 좋지 않으며, 식욕이 부족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정기를 도와서 사기를 제거한다는 관점으로 가미귀비탕을 응용하여 위에 언급한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가끔 질병은 치료되었으나 환축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부정扶正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또 하나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한다.

일반적으로 병세가 급하면 병을 치료하고, 병세가 급하지 않고 체력이 부족하면 체력을 보충해주는 것을 우선시하는

데, 실제 임상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여 처방을 선택하고 치료를 하게 된다.

2.3 동병이치同病異治와 이병동치異病同治

어떤 질환의 초기, 중기, 말기 또는 급성기, 완화기, 후유증기 등등의 단계가 조금씩 다른 병리상태를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질환이라도 여러 단계의 병리변화를 거치게 된다. 같은 질환이라도 각기 다른 처방을 운용하는 이유이다. 동일한 질환에 여러 가지 성격이 전혀 다른 처방을 쓰는 것을 동병이치라고 한다.

서로 다른 질환이라도 어떤 단계에서 동일한 병리변화를 보인다면, 같은 처방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이병동치이다. 만성 설사, 탈항, 자궁하수 등에 보중익기탕을 처방하는 것이 이병동치의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까지 전통수의학의 예방과 치료원칙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지만,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은 일단 용어가 한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전통수의학적 이론에 대한 생소함이 있기도 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용어의 낯설음이나 생소함을 떠나 이치를 따져보면 동서양의 의학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때로는 양한방 협진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동서의학의 막론하고 원인치료를 통해 병의 근원을 제거해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으나, 전통수의학에서 사자성어와 같은 한자로 구별치분, 부정거사, 동병이치 등을 논하고 있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함을 내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전통수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론체계와 다양한 논리로써 질병을 인식해왔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구별치분, 부정거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응용하고자 한다면, 약간의 전통수의학의 생리병리 이론에 대해서 알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전통수의학적 치료가 효과를 보이는 질환군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되면 임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마문화자료집1. 신역 마경언해. 남도영.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4년. P253~254